

4개 언어로 드러진 특별한 부활절 연합예배

기쁜우리교회 다민족 부활절 연합예배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지난 9일 부활절을 맞아 다민족 연합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눴다.

이날 예배에는 기쁜우리교회와 예배당을 함께 사용하는 영어권 교회인 글렌데일 장로교회 (GPC, Glendale Presbyterian Church), 알미니안 교회(Branch of Righteousness Church), 아랍교회(Arabic Christian Community Church) 성도들이 참석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했다.

다민족 연합찬양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영어, 한어, 알미니안어, 아랍어 등 4개 언어로 찬양하는 큰 감동의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기쁜우리교회 찬양대는 특별찬양,



기쁜우리교회 2023 다민족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각 교회 리더십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봉헌찬양, 폐회 찬양을 한국어로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부활절 설교는 누가복음 24장 1-12절을

본문으로 네 교회의 목회자가 4개 언어로 전했다. 축도 역시 네 명의 목회자가 4개 언어로 했다.

이날 “빈 무덤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경진 목사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갇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알려주셨다”며 “죽음과 사망을 부활과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자”고 전했다.

김 목사는 이날 부활절 연합예배에 대해 “천상의 예배와 같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드린 시간이었다”며 “언어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믿음으로 예배하는 축복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기쁜우리교회를 포함한 각 교회가 연합해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기자

전 세계 3,610개 언어로 성경 번역... 지난해 57개 추가

대한성서공회, '2022 세계 성경 번역 현황' 발표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진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 세계 7억 2천 3백만 명이 사용하는 81개의 언어로 된 성경이 번역됐다고 대한성서공회(이하 공회)가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부터 방글라데시에 이르기까지 57개 언어 사용자, 1억 명은 처음으로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받았다. 또한 새로운 번역 또는 기존 번역의 개정판은 6억 2천 3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25개의 언어로 완성됐다. 공회는 “이에 따라 기존 번역본으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언어 공동체들이 성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총무 더크 게버스(Dirk Gevers) 목사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독특하고 강력한 서사의 중심부에는 성경 번역이 있다. 번역팀들은 사명의 최전선에 서서 자신들이 섬기는 공동체들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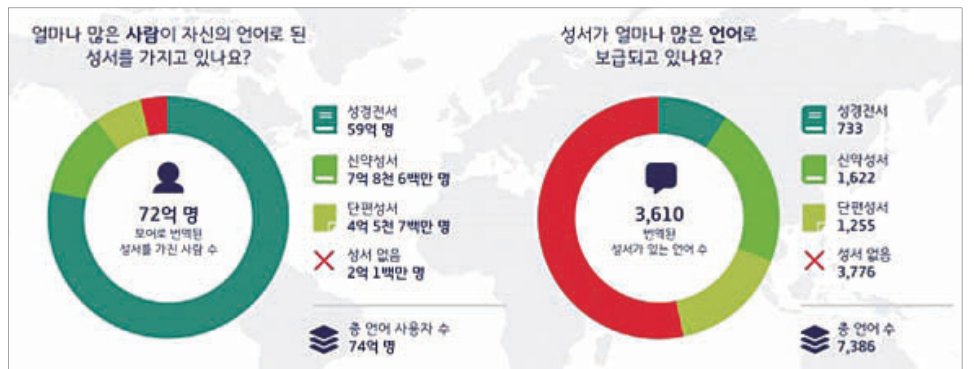
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실로 ‘사랑의 노동’으로, 지속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힘겨운 과업”이라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격려처럼 성서 번역에 헌신하는 번역팀 각 사람이 ‘건설하며 굳게 서도록’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2022년 세계 성경 번역 현황

공회에 따르면 2023년 초 기준, 총 7,386개의 언어 가운데 성경 전서는 733개의 언어로 번역돼 보급됐다. 신약은 1,622개 언어로, 단편 성경은 1,255개 언어로 각각 번역됐다. 모두 3,610개 언어다. 나머지 3,776개 언어는 단편 성경조차 번역되지 않았거나 번역 중이라고 한다.

전 세계 59억 명이 성경 전서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갖게 된 사람들은 7억 8천 6백만 명,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경을 갖게 된 사람들은 4억



2022년 세계 성경 번역 현황 인구, 언어 통계 ©대한성서공회

5천 7백만 명이다. 하지만 2억 1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 세계 언어 절반 가량은 아직 성경조차 번역되지 않았다. 그리고 15억 명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 전서가 없다.

◆ 57개의 언어로 완성된 첫 번역 성경

2022년 한 해, 성경 전서와 신약 성경, 단편 성경을 포함해 57개의 언어로 첫 번역 성경이 출판됐다. 이 가운데 14개 언어는 성경 전서로, 5개 언어는 신약 성경으로, 38개 언

어는 단편 성경으로 번역됐다.

◆ 성경 번역 로드맵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2018년부터 2038년까지 1,200개의 성경 번역을 완성한다는 큰 비전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 가운데 880개는 첫 번역 프로젝트고, 나머지 320개 프로젝트는 새로운 번역이거나 개정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한다. 현재까지 133개 번역이 완성됐고, 333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김진영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여기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새미안교회
SEMIHAN CHURCH

예배시간

주일 예배	1부 9:30 AM 캐롤튼	금요성령집회
	2부 11:15 AM 캐롤튼	금요일 저녁 7시
	3부 12:30 PM 노스캠퍼스	새벽기도회
	4부 2:30 PM 캐롤튼	화금 오전 6시

이은상 목사
Dr. Ryan E. Lee

OC 부활절 예배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오렌지카운티(OC) 기독교 연합 기관이 공동 주최한 OC 부활절 연합예배가 지난 9일 새벽 소스몰 1층 야외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추석근 목사(선한뜻교회)의 사회로 박재만 목사(미라클포인트교회)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은혜한인교회 2부 성가대가 특별찬양으로 “예수”를 불러 큰 감동을 전했다.

이어 신용 안수집사(OC전도회연합회 회장)의 성경 봉독 후 OC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심상은 목사가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어나라(고전 15:12-2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심상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소망의 증거”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설교했다.



오렌지카운티(OC) 기독교 연합 기관 공동 주최로 소스몰 1층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OC 부활절 연합예배 ©기독교일보

심 목사는 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 부활신앙은 연약한 신앙의 가슴에 불을 붙여서 순교의 길로 뛰어가게 한다”며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OC 지역과 전 미주, 전 세계로

뻗어나가 복음을 전파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부활절 축사는 신원규 목사(OC교협 이사장)와 한기홍 목사(OC 교협 증경회장), OC한인회 조봉남 회장이 맡았다. 신원규 목사는 “올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신앙이 율법의 신앙에서 복음과 부활 신앙으로 전환되어지길 바란다”며 “우리의 모든 의로움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한기홍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시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셨다”며 “죽음과 미움, 거짓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자”고 전했다.

OC 교계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해 모금된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 구호 성금 가운데 10만 달러를 한기홍 목사에게 전달했다. 한기홍 목사는 부활절 당일 은혜한인교회 선교팀과 튀르키예로 출국해 구호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LA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 선포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2023년 부활절 연합예배

2023년 부활절을 맞아 LA 지역에서는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최영봉 목사)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선포했다.

최영봉 회장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한날, 남가주 교계가 연합으로 새벽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남가주 지역 모든교회가 되자”고 환영했다.

9일 새벽 남가주명성교회(담임 정해진 목사)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는 최영봉 목사(교협 회장)의 사회로 김일형 목사(교협 부회장)가 기도하고, 광태진 목사(교협 서기)의 성경봉독 후에 남가주명성교회 특별 찬양이 있었다.

설교에 나선 정해진 목사(33대 증경회장)는 “부활신앙의 핵심은 영생을 소유하는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다”라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변화되자. 2023년 교계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새롭게 변화되자”고 권면했다.

이어 이소일 목사(교협 부회장)가 봉헌기도하고 조준석 목사(교협 음악부장)가 특송으로 은혜를 더 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샘 신 목사(교협 부회

장)가 미국과 한인 이민사회 및 교회를 위해, 최영하 목사(교협 부회장)가 남북한 평화와 복음통일을 위해, 최경일 목사(교협 부회장)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튀르키예의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김인숙 목사(교협 부회장)가 선교사들의 안전과 복음의 열매를 위해, 심진구 목사(교협 부회장)가 남가주와 세계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정완기 목사(50대 증경회장)의 특별 섹스폰 연주 후에 서정기 목사(교협 증경회장당 대표회장), 홍영환 목사(33대 증경회장), 최학량 목사(34대 증경회장), 정완기 목사가 축하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창영 목사(교협 총무)의 광고후에 한기형 목사(31대 증경회장)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김민선 기자

LA 동부지역 2023년 부활절 연합예배 ‘예수 부활 하셨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LA 동부지역 2023년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동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송재호 목사) 주최로 부활주일(9일) 오전 5시 30분,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에서 열렸다.

동부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된 예배는 “예수 부활 하셨네”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 모두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두려움과 연약함에 있었던 현실을 벗어 던지고, 이젠 새롭게 미국과 한국 그리고 온세계에 부활의 복음을 다시 전파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초교파적으로 드러졌다.

연합예배는 박선호 목사(늘푸른교회 담임, 협의회 부회장)의 인도로 기원과 선포, 송병

주 목사(선한정지기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송재호 목사(할렐루야한인교회 담임, 협의회 회장)의 성경봉독, 동부지역 연합성가대의 특송, 우영하 목사(동부사랑의교회 담임)의 설교, 아름다운교회 남성중창단의 봉헌특송, 구자민 목사(유니온교회 담임)의 봉헌기도 그리고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담임)의 축도의 순서로 드러졌다.

특별히, 본협의회 직전회장이었던 우영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성도 된 우리 모두도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아울러 동부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인 송재호 목사는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롭



LA동부지역 한인교회협의회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게 부활절 새벽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밝히며 성도들이 모아 주신 헌금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를 위한 구제 헌금으로 보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튀르키예를 도와 주세요!

지진으로 무너진 집터 위에 눈물로 세운 텐트를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자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선교사와 터키 교회가 작은 집(Tiny House) 세우기로
튀르키예에 희망을 세우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난민을 섬기는 장면



지진으로 무너진 튀르키예 교회



이재민용 Tiny House



작은집(Tiny House) 입주가족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창립 40주년 나성한미교회 힘찬 도약 다짐

나성한미교회에서 지난 40년간 한결같이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창립 40주년 감사예배 및 제 7대 담임목사 취임식'이 부활주일인 9일, 오전 10시 30분 거행됐다.

이날 취임한 홍충수 담임목사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모인 이들은 한 마음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 더욱 '부름 받는 공동체, 세움 받는 공동체, 보냄 받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이날 취임 감사예배에는 나성한미교회 전임 담임 목회자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대평 목사(2대 담임)의 집례로 시작된 취임식은 먼저 김종원 목사(경산중앙교회), 송재호 목사(할렐루야한인교회), 강영 목사(



©창립 40주년 감사예배 및 제 7대 담임목사 취임식 담임목사 부부 서약

예수반성교회)의 축하를 담은 '40주년 축하 영상 및 교회 역사 사진 영상'이 상영됐다. 이어 찬양, 담임목사 및 교인 서약과 취임 공포

및 기도가 뒤 따랐다. 취임 인사 및 당회원 인사 순서에서 먼저 홍충수 담임 목사는 "40년 역사를 가

진 교회에 취임한 것은 너무도 큰 기쁨이고 영광이다. 특별히 올해, 40주년을 맞는 교회여서 큰 무게감이 있다. 처음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성도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나성한미교회를 말씀의 진리의 기동과 더 위에 '부름 받는 공동체, 세움 받는 공동체, 보냄 받는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당회원 인사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김영호 장로, 류재근 장로, 이찬용 장로가 성도들 앞에서 인사했다.

이어 전병주 목사(5대 담임)가 권면해, 박시경 교수(그레이스신학교 한인디렉터)가 축사를 전했으며, 취임패 증정, 취임사, 결단의 찬양, 그리고 김세윤 박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쳐졌다.

크렌셔장로교회, 성금요일예배와 부활절 칸타타 '다 이루었다' 공연 큰 감동

크렌셔장로교회(담임 한현종 목사)는 지난 7일, 성 금요일예배와 부활절 칸타타 '다 이루었다' 공연으로 인류의 모든 죄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나눴다.

이상윤 장로가 작사한 대본에 백경환 목사가 작곡을 완성한 '다 이루었다' 칸타타는 난이도가 높지 않아 수 차례의 연습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이 민교회의 정서와 상황을 잘 녹아낸 곡으로,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의 세 독창자와 합창으로 구성된 8부작 곡으로 구성됐다.

1부 예배는 조영철 장로가 기도하고 한현종 목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본문으로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 목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강조하며, "지금 우리가 걱정과 불안, 초조한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크렌셔장로교회 한현종 목사

라고 권면했다.

이어진 2부, 부활절 칸타타 '다 이루었다'는 이영두 지휘자의 인도로 <제 1곡: 이처럼 사랑하사>, <제 2곡: 세상에 오셨도다>, <제 3곡: 이 잔을 내게서>, <제 4곡: 무슨 죄가 있기에>, <제 5곡: 우리의 허물 인하여>, <제 6곡: 하나님 어찌하여>, <제 7곡: 하늘도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제 8곡: 다 이루었다>로 이어지며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서사를 감동적으로 풀어내 청중과 연주자 모두에게 큰 은혜를 선사했다.

벤추라카운티 교회협의회,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그때로 일어나'

벤추라카운티 교회협의회(회장 이요셉 목사) 부활주일 연합새벽예배가 9일(주일) 오전 6시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에서 열렸다.

회장 이요셉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웨스트레이크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이상영 목사(카마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대표기도, 인도자의 성경봉독(누가복음 24장 30-35절)에 이어 남재현 목사(옥스나드 연합감리교회)가 '그 때로 일어나'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남재현 목사는 3년 만에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벤추라카운티 교협이 비록 규모는 작고 외곽에 있지만 목회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섬기는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서두를 땀다.

이어 남 목사는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해 느끼고 있고 알고 있지만 말하기를 꺼

려한다. 우리의 관심은 오늘 나의 삶 혹은 미래의 문제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백세 시대를 산다고 은퇴 이후 노후 준비에 얼마나 애를 쓰고 버둥거리는가? 과연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해 그토록 애를 쓰고 준비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이후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한 심판, 하나님 물어 오실 질문에 답을 준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도전했다.

남재현 목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며 말씀을 풀어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떡을 떼어 주시던 그 섬김으로 눈을 뜨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 했듯이,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한 날을 맞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



©벤추라카운티 교회협의회 부활주일 새벽연합예배

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며, 영원한 소망으로 삼기를 권면했다. 예배는 교역자 부부의 특송 '그의 빛 안에

살면'과 광고, 찬양과 김재호 목사(뉴버리파브릿지교회)의 축도로 마무리 됐다. 김동욱 기자

정확하고 최고로 빠른 리페! 5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의 진료 수준 별 5개의 최우수 등급 메디칼 그룹!

시니어분들이 건강 영웅! 서울메디칼그룹

메이저 리그 코리아 특급 박찬호

SMG 서울메디칼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메디칼그룹의 모델투임을 알려드립니다.

“137m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 십자가 신앙과 다른 길”

천안에 세계 최대 137m 높이의 예수상을 비롯해 국내 최대 기독교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계획에 대해,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최대 예수상 건립은 중세 교회의 영광 신앙 재현이요 종교개혁교회의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살롬나비는 3일 논평에서 “(종교개혁자들이)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열매는 프로테스탄트 성도들은 로마 가톨릭이 형상화한 교회 내의 모든 우상들을 멀리하는 것”이라며 “역사적인 종교개혁의 소중한 가치와 성경적인 신앙과 신학의 흐름은 신앙의 선조들이 피 흘려 싸운 열매인 것이기에 계승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랜드마크 예수상보다 4배 가까이 높은 규모의 예수 형상화는 우상에 불과하다”며 “기독교 테마파크라는 명목으로 기독교인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찾아 기독교 사업을 병자하여 돈벌이에 눈이 멀어 성경적인 종교개혁의 기독교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살롬나비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

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다”며 “십계명 제2계명을 범한 대단히 잘못된 우상화이기에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교계에서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또 “개혁과 종교개혁자들은 제2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상상과 성유물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였다. 지금까지 장로교회는 교회 안에 일체의 그림과 상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며 “물질로 높은 상을 만들어 한국교회의 부를 자랑하고 관광객을 모으려는 것이라면 종교개혁 당시 성베르로 성당을 만들어 부를 과시하고자 면벌부를 팔았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살롬나비는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이미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137미터 높이의 예수상을 세워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는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137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일대에 조성 계획을 밝힌 (재)한국기독교기념관, 137미터의 예수상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의 4배 규모다. ©기념관 제공

터의 예수상을 세우면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물량주의적인 모습을 처절하게 회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의 소외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독교가 세

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 갈 수 있다”며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눈에 보이는 예수상을 건립하여 물질적인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예수처럼 희생하고 영혼 구원의 사역에 매진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고성에 있는 ‘김일성 별장’, 원래 선교사 안식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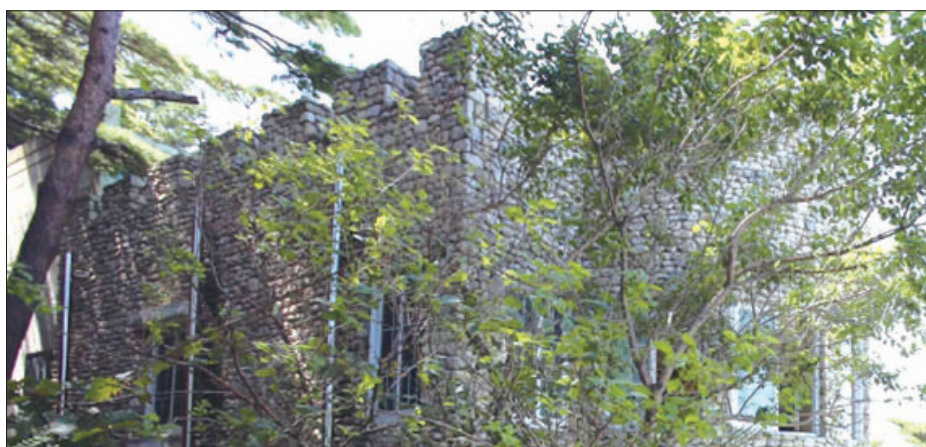
고성군, 셔우드 홀 문화공간 만든다... 기감 등과 업무협약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길에 있는 ‘김일성 별장’은 셔우드 홀 선교사가 1938년 아버지 제임스 홀의 순직생애보험금을 기반으로 건립한 선교사들의 안식처였다. 이후 김일성 일가가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별장으로 사용했다. 한국전쟁 중 우리 지역에 포함됐고, 지금은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다.

당초 고성군은 이 김일성 별장을 셔우드 홀 선교사의 기념관으로 조성하려 했다. 그러나 별장 활용에 대해 국방부와 협력이 불가해져 화진포생태박물관을 리모델링해 셔우드 홀 문화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연내 마칠 계획이다.

셔우드 홀 선교사는 제임스·로제타 홀 부부 사이에서 지난 1893년 서울에서 태어나 1991년 생을 마감했다. 한국 근현대 의료에 큰 공헌을 한 인물로 평가된다. 평양 선교기지를 개척했고 평양기흥병원, 광혜원(현 세브란스병원), 동대문 부인병원(현 이화의료원), 인천부인병원(현 인천기독교병원) 등에서 의료선교사로 활동했다. 1932년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실을 발행하기도 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교회 이철)는 고성군, 로제타홀기념관, 대한결핵협회와 4일 오후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셔우드 홀 문화공간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김일성 별장 ©고성군

이날 함명준 고성군수는 “셔우드 홀 문화공간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웠는데, 감리교회와 로제타홀기념관, 결핵협회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기감 이철 감독회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고성군이 다시 주목받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순례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며 “결핵에 대한 인식이 옛날과 달리 많이 없어진 상황인데, 아직도 결핵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결핵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감독회장은 셔우드 홀 선교사가 어렸을 때 이모처럼 친하게 지냈던 박에스더(본명 김점동/한국 최초 여의사)가 결핵으로 사망하자 큰 충격을 받아 전공을 결핵 연구로 택하고 평생을 결핵 퇴치를 위해 헌

신했다고 그를 소개하기도 했다.

로제타홀기념관장인 강경신 목사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한국 근대의료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선교사들이 기여한 것에 대해 관심이 소홀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고성군에서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CGNTV, 개국 18주년 맞아 사명 교체

선교 미디어 ‘CGN’으로 리브랜딩

CGNTV가 지난 3월 29일 개국 18주년을 맞아, 기존 이름에서 TV를 뺀 ‘CGN’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지난 2005년 한인 선교사와 디아스포라를 위한 위성방송으로 시작한 CGNTV의 새로운 사명 CGN은 자유로운 확장성을 의미한다. 플랫폼과 국경을 넘어 복음이 필요한 곳 ‘어디서나 모두에게’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한다.

CGN(Christian Global Network)은 그동안 선교사를 돕기 위한 위성 방송 사역부터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케이블, IPTV, 모바일, 유튜브 등 플랫폼의 확장과 더불어 차별화된 복음 콘텐츠를 선보이며 도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2021년 국내 최초로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을 출시해 무분별한 콘텐츠가 범람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균형 잡힌 기독교 미디어 소비 환경을 구축해오고 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2023년 디카시인협회 신인상 공모

미주한인사회와 미주를 역량있는 능력으로 선도할수 있는 능력있는 디카시 창작 작품을 모집하며 신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디카시인협회 신인상을 공모합니다. 디카시의 미래를 함께 미주에서 열어갈 재능있고 능력있는 신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 응모: 디카시 5편
- * 응모기간: 2023년 4월 15일(토) ~ 5월 15일(월)까지
- * 발표: 2023년 5월 22일(월)(개별 통보)
- * 응모분류: 아동부(유치부~초등학생), 청소년부(중학생~고등학생), 일반인(대학생~성인)
- * 요령
 - 1) 본인이 직접 촬영한 순수한 사진
 - 2) 사진 주제에 맞는 자신이 직접 쓴 시
 - 3) 첫페이지에 본인 실명과 영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5편의 디카시 제목을 기입해 주며, 두번째 페이지부터 사진과 그 아래 별도의 글(4줄이상 10줄 미만)을 5편을 만들어 이메일로만 접수 받으시니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자격: 미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 * 혜택: 입상자들은 디카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가능하며, 등단증을 발급하고, 대학교에 들어갈 학생들은 디카시인협회에서 활동하며 커뮤니티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 * 유의사항: 응모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표절이나 사진도용이나 모방이 밝혀질 경우 모든 당선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당선자는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한달에 한번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주최: 디카시인협회(DICAPOET ASSOCIATION), 디카시인연구소(DICAPOEM INSTITUTE)

13939 BOXWOOD PL, PANORAMA CITY, CA 91402

TEL: 213-422-8916, EMAIL: dicapoet@gmail.com, dicapoeminstitute@gmail.com

이사장: 최순길, 회장: 이동규, 총무: 최경일

목회자 79% “설교 준비에 챗GPT 사용될 것”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650명 대상 설문 결과

목회자 5명 중 1명 꼴로 목회 및 설교를 위해 챗GPT를 사용하고 있으며, 목회자 5명 중 4명이 앞으로 설교 준비에 챗GPT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과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목회자 650명(담임목사 325명, 부목사 325명)을 대상으로 챗GPT에 대한 인식과 사용 실태를 조사,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챗GPT, 대부분 '설교 준비'에 쓰여

이에 따르면 챗GPT를 사용해 본 목회자(47%)에게 그것을 목회나 설교를 위해 사용해 본적이 있는지 묻자 4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를 전체 목회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목회나 설교를 위해 챗GPT를 사용해본 경험자는 20%로 5명 중 1명 꼴이다.

목회 사용 분야(중복 응답)로는 △'설교 또는 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 획득'이 87% △'설교문 작성'이 29%로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 보기를 선택한 비율은 응답자의 92%에 달했다.

이에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챗GPT의 목회

사용 분야는 대부분이 '설교 준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목회자 5명 중 4명(79%)은 앞으로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에 챗GPT를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본인의 설교 준비에 챗GPT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4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 결과 신뢰도 높지만 설교문 만족도 낮아
한편, 챗GPT를 사용해 본 목회자에게 만족도를 물었다. '만족'이 52%, '불만족' 15%였다. 챗GPT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81%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챗GPT로 생성한 설교문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챗GPT를 사용해 설교문을 직접 작성해 본 목회자 3명 중 2명(67%)은 '평소 내가 준비한 설교문보다 못하다'라고 응답했고, 결과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41%로 '만족'한다는 비율 33%보다 높았다.

생성한 설교문을 실제로 활용했다는 질문에 3명 중 2명(65%)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3명 중 1명(35%)은 설교문 전체가 아닌 일부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Rolf van Root/Unsplash

◆ '설교에 일부 사용' 표절 아냐 58%

설교 준비에 챗GP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적절성에 대해 '적절하다' 34%, '부적절하다' 33%, '모르겠다' 33%였다. 연구소는 “현재 목회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집중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챗GPT를 사용해 작성한 설교문이 표절인지에 대해선 '일부만 사용한다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다.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표절이다'는 30%였고, '전체를 다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기 어렵

다'는 5%에 그쳤다.

챗GPT를 이용한 설교문 작성에 목회자 54%는 '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20%로 나타났다.

◆ “아무리 챗GPT가 발전을 해도...”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교회에서 활용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는 '개인적인 목상과 연구가 줄어들'이 51%(이하 1+2 순위)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부족' 32%, '인공지능의 오작동, 오류 가능성' 28%, '각종 저작물 등의 무단 도용' 26%, '목회적 윤리에 맞지 않음' 25% 등의 순이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챗GPT를 설교에 활용할 때의 문제점, 표절 문제, 설교 준비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하면, 아무리 챗GPT가 발전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영을 돌보는 목회자들은 자신의 목상과 연구,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력을 키우고 그 통찰력을 설교와 목회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교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챗GPT의 도움으로 절약하고 더 깊은 통찰력이 반영되는 설교를 하도록 준비를 해야 할 책임이 더 막중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이영훈 목사 “출산 장려금 1억이면 저출산 해결...기독교 정치인들 머리 맞대야”

◆ 여·야 기독교 의원 50여 명 한자리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가 기독교 정치인들에게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품는 ‘겉옷’ 같은 지도자, 신앙 양심으로 말씀을 지켜 공의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해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에 기독교 의원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 목사는 5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국회조찬기도회 부활절 기념예배'에서 설교했다.

이날 예배는 송석준 의원(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 국민의힘 의원)의 인도로 김회재 의원(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이 기도하고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의 성경 봉독, 여의도순복음교회 나사렛찬양대의 특송,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회재 의원은 “정치인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청지기가 되게 해 달라”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고, 소모적 정쟁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화해와 상생, 공의와 화평의 정치를 이루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영훈 목사는 ‘바울의 마지막 부탁(딤후 4:13)’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1975년도 난지도 철거민촌에서 1주일간 봉사하던 중 같은



2023 국회조찬기도회 부활절 기념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송경호 기자

하늘 아래 이렇게 어려운 이들이 있는지 생각하며 ‘평생을 소외된 이들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했었다”며 “세상은 갈등과 대립의 지도자가 아닌, 아프고 춥고 배고픈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는 영적 지도자를 원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미혼모가 3만 5천 명이고, 한 달 50만 원이 없어서 아이를 여관에 놔 두고 유흥업소에 나선다. 한 해 보육원을 나서는 18살 이후 아이들이 2만 명인데, 이들이 갈 곳이 없어 선배들을 따라 좋지 않은 곳에 간다. 장애우와 노숙인 등, 눈만 돌리면 사랑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200만 다문화 시대에 불법체류 근로자의 자녀들은 이 땅에 태어나도 신분증이 없어 아파도 병원조차 갈 수 없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임시 영주권을 주어 18세까지 의료와 교육 혜택을 준다면, 한국에 평생 고마움을 갖고 돌아가지 않겠는가. 또 탈북자 3

만 5천 명 시대에 그들의 MZ세대는 국제적 고아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를 거론하며 “대학 정원이 50만인데 지난 해 24만 명이 태어났다. 18년이 지나면 대학의 60%가 문 닫는 절망적 상황”이라며 “15년 전부터 계속 부르짖어도 관심 갖는 정치인이 없었다. 한해 저출산 대책에 32조를 사용한다. 한 명이 출생할 때마다 1억씩 주기라도 한다면 아이를 낳을 텐데, 국회의원들이 답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선 대만이 이 법을 통과시켰고,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들을 과잉 보호해 법으로 그들의 권위를 대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름을 바꿔 가며 법안을 계속 올리며 ‘언젠가는 통과될 것’이라고 하는데, 신앙의 양심을 가진 크리스천 의원들

이 있는 한 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난주간, 어둡고 무거운 주제를 다뤘다. 고난은 다가오는 부활의 과정”이라며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다. 이 능력에 의지해 따뜻한 겉옷처럼 품어 주는 의원들, 말씀을 지켜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꾼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조해진·김수홍 의원 특별기도

이어 특별기도 시간 나라와 국회를 위해 기도한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국회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 된 의원들이 기도하고 합심해 주의 뜻을 따라 정치에 임하게 하시고, 법사에 정결한 삶, 정결한 입법으로 거룩한 신앙의 정치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게 해 달라. 주님 주신 사명에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자신을 던지고,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김수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치인들이 마음에 새기고 인류와 평화의 번영을 위해 일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릴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신 주님을 닮아 여야 의원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김진영 기자

He is Risen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예배시간 안내

-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7:45
-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9:45
-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11:45
- EM & 대학부예배 주일 오전 10:00
- 중고등부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45
- 청년부 모임 주일 오후 1:45
-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http://www.beautifulchurch.org/>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박자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김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차권희 담임목사
놀웁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k@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동훈 담임목사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근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희근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중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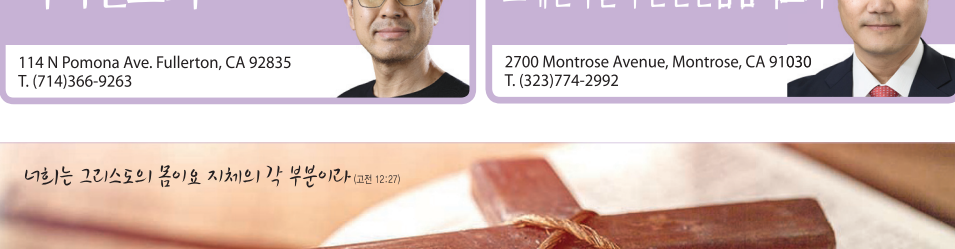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홍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gmail.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진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로 북미로 이민가정을 위하여,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기도회 오전 6: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로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를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유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참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강지원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해가 있으며 신과 진노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안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치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 마음 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며 사명을 변호하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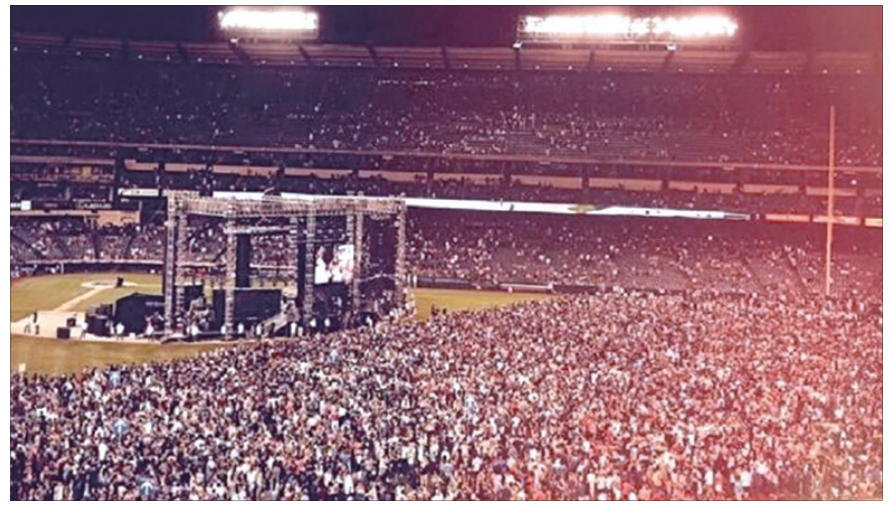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美 대형 전도 집회 ‘하베스트 크루세이드’, 올해는 ‘혼다 센터’ 에서



하베스트 크루세이드 집회 현장. © Harvest.org/FILE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에 인질 스타디움에서 30년 넘게 ‘하베스트 크루세이드’(Harvest Crusade)를 개최 온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의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가 ‘올해 행사는 혼다 센터(Honda Center)에서 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로리 목사는 최근 ‘하베스트 크루세이드’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에인절 스타디움의 경영진이 야구 시즌 동안 경기장 대여를 할 수 없다고 조직위원회에 알려 왔다”며 행사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그는 “스타디움 측은 광범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에 확고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며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1년 동안 경기장에서 만날 수 없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러시 오브 호프’(A Rush of Hope)와 같은 영화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선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리 목사는 향후 에인절 스타디움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2023년 하베스트 콘퍼런스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혼다 센터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1~2일로 예정된 행사는 밀폐된 환경에서 진행되며, 참석자들에게 보다 친밀하고 몰입적인 예배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또 무대와 객석이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美 버지니아 학군, 교사 이메일 서명에 ‘성경구절’ 금지

리버티카운슬, LCPS 학군에 “종교적 차별” 항의 서한

미국 버지니아의 한 학군이 교사가 이메일 서명에 성경 구절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버지니아주 에스번에 위치한 로운턴 카운티 공립 학군(Loudon County Public Schools, LCPS)이 익명의 교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메일 서명에 넣는 것을 금지하자, 기독교 법무법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cil)이 교사를 대신하여 이 조치에 항의했다.

리버티 카운슬의 설립자이며 회장인 맷 스타버는 3일 성명을 통해 “수정헌법 제1조와 최근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교사가 서명에 이 구절을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며 LCPS 학군이 “다른 교사가 비종교적 인용문을 포함시킬 때, 서명에 성구를 사용하려는 교사를 차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리버티 카운슬은 지난달 23일 LCPS 학군의 감독 대행인 다니엘 스미스에게 서한을 보내 교사가 “이메일 서명란에 성경 구절을 다시 넣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서한은 “LCPS가 (교사)에게 이메일 서명란에서 그녀의 개인적인 신앙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전적으로 종교적 특성에 근거한 종교 차별에 해당한다”며 “학군은 교사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고자 자신이 선택한 대명사, 인용문, 그림 또는 문구를 자신의 서명란에 붙이는 것을 허용해야 하며, 이는 LCPS가 아닌 교사에게 돌려야 한다”고 했다. 또 “이메일 서명란에 성구가 있는 것이 설립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교사의 사적인 연설은 교사가 전달하기로 선택한 종교적 메시지에 대한 정부의 서명이 아니”라며 “로운턴 카운티 공립 학군이 현재 대법원 판례에 맞게 정책과 관행을 개정하고, 종교적 관점으로 교사를 차별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스미스 교육감 대행은 지난 31일 서한에 대한 답신에서 “교사가 학교 대표로서 사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교사는 LCPS 자원의 상당한 양을 소비하지 않고, 직무 수행 또는 기타 학교 부서의 책임을 방해하지 않으며, LCPS 정책을 준수할 경우에만 업무의 목적으로, 이메일을 포함한 학교 부서 기술을 개인적으로 가끔 사용할 수 있다”라며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그는 해당 교사가 “사적인 서신에 종교적 인용문을 포함한 것이 아닌, LCPS 직원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보내는 통신에 이러한 종교적 인용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소통은 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학교 기관의 표현적인 지지를 받는, 학교 보증을 발언에 해당한다”며 규제 대상임을 명시했다. 김유진 기자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97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튀르키예(터키)에 부는 교회개혁(CP)을 바라보면서(2)”

지난주에 이어 튀르키예(터키)에 역사 하시는 하나님(성령)의 교회 개혁 부흥 운동을 말하려고 한다.

필자는 지난 2006년 10월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의 “제1회 시리아 난민교회 지도자 연합 수련회”를 잊지 못한다. 3박 4일간 실크 웨이브 미션이 주관하여 터키 각지의 시리아 난민교회 지도자 60여 명이 모였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갔다. 현지 목회자들이 양육하고, 추천한 사역자들이라서 우수한 교회 개혁자들이 선정되었고 실크 웨이브 미션은 그들에게 각 후원 교회가 연합하여 재정과 기도 지원을 하면서 교회 개혁에 협력하였다.

필자가 이번 2월 터키 선교지를 방문하여 앙카라에서 목회하는 현지인 목사를 만났을 때 그는 앞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올바른 신학과 성경 공부로 통한 양육과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현지 “신학교” 개념의 교육 프로그램을 세워야 할 것임을 인식하면서 함께 그 일도 해나가자는 제안하였다. 그의 의견에 필자도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 주시라는 기도 제목을 정하여 앞으로 서로 연합으로 기도 회를 지속하자는 답변을 하였다.

필자는 이번 터키 선교지 방문에서 15개 지역의 교회 개혁 지도자들을 만나 교제하고, 그들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예배를 드렸다. 그들 중에는 이란 난민, 시리아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 북아프리카 선교사, 쿠르드 민족, 투르크 민족 등 다양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터키는 이 모든 민족의 교회 개혁 사역이 다 가능한 나라로 변모하였다. 이는 실로 그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경하심이었다. 한국인으로서 감사드리시는 것은 아직까지 그 민족 지도자들은 한국인 선교사들에게서 교회 개혁, 신학, 성경 공부 등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열방의 나라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가 본 열방의 교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분들이 많다. 이란 교회, 이집트 교회, 시리아 교회, 아프리카 교회, 이스라엘 교회, 인도 교회, 중국 교회 등이 앞으로 세계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남부와 스페인 북부 사이에 나바라 왕국이 있었습니다. 나바라 왕국을 다스리는 페르디난드(Ferdinand)왕은 성실한 통치자였습니다. 왕은 나라를 잘 통치했고 덕분에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나바라 왕국은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부유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던 페르디난드 왕은 학문에 관심이 많아 학술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학문에 관심이 많은 세 명의 공신, 즉 베론느, 롱가비유, 듀메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앞으로 3년간 연구에 몰두하기로 했습니다.

왕을 포함한 네 사람은 앞으로 3년간 모든 욕망을 끊고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3년 동안 여인을 멀리하고 오락도 금한다. 둘째, 7일 중 하루는 금식하고, 나머지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셋째, 매일 세 시간만 자고 낮에는 절대로 졸거나 하품을 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규칙을 절대 준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국왕을 대신하여 프랑스 공주가 두 나라 간의 중요한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나바라에 왔습니다. 혼자 오지 않고 세 시녀 로잘린, 머라이어, 캐터린을 거느리고 왔던 것입니다. 나바라의 페르디난드 왕과 학술원을 지키던 신하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던 것은 물론 금욕과 절제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베론느가 일장 연설로 프랑스 공주 일행을 만나야 할 이유와 무리한 언약을 파기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명쾌한 논리에 왕과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굳은 맹세를 접고 공주 일행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프랑스 공주 일행을 보자마자 그녀들에게 반했고 그들이 반했다는 사실을 그녀들도 눈치챈습니다.

각각 두 나라의 남녀 네 사람은 만남을 즐깁니다. 그들은 각각 짝을 지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고 여인들은 받은 선물들을 품평합니다. 나바라의 왕과 대신들도 여인들을 만나서 설렘과 흥분이 있었지만, 프랑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스의 공주와 그 일행도 새로운 만남에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왕과 공주 그리고 대신들과 공주의 수행원인 시녀들이 흥미진진한 사랑놀이를 합니다. 사랑인 듯 게임인 듯 놀이를 즐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각각의 남녀 네 쌍은 서로에게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소식이 프랑스로부터 들려 옵니다. 프랑스 왕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였습니다. 프랑스 왕실의 상황은 공주가 여왕으로 등극해야 할 처지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공주가 왕으로 즉위하는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나바라 페르디난드 왕은 맥이 빠졌습니다.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신들도 맥이 빠졌습니다.

페르디난드 왕은 떠나는 공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나의 질문에 답하고 가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장난처럼 사랑극을 하였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소! 이 사랑을 고백하며 청혼하니 부디 확실한 대답을 주고 가시길 바라오! 공주! 세 명의 여인들도 우리 대신들에게 답을 주고 가시게 말해주시오.”라고 왕은 진심을 담아 공주에게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갑자기 떠나야 하는 공주에 대한 섬섬함의 토로이기도 하지만 왕의 진심이었습니다. 왕이 공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대신들도 공주의 시녀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주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일 년 동안 금식과 기도로 수행하시고, 물과 빵으로만 사시겠다고 저의 손을 잡고 약속하세요. 그것을 견디면서도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때 저를 찾

아와 저의 손을 잡고 다시 사랑을 고백하시면 영원히 당신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시녀들에게도 자신들을 사랑하는 대신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게 했습니다. 캐서린은 뒤넨에게, 마리아는 롱가비유에게 공주가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잘린은 베론느에게 다르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재치가 넘치고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도를 닦는 대신 매일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웃기세요. 병원을 찾아가서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들은 베론느는 “죽어가는 사람을 웃기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죽는 사람이 무모하고 남을 무시하는 농담을 듣고 어떻게 웃겠습니까?” 로잘린이 “그러니까요. 좀 더 신중하고 마음이 동하는 농담을 연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정하게 남을 비꼬는 농담은 그만두세요. 일 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왕과 신하 둘은 수도자의 삶을 작정하고 베론느는 병원에서 환자를 웃기는 익살꾼 노릇을 하면서 1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와 세 여인은 섬섬하지만 일 년 후에 올릴 결혼식과 프랑스와 나바라가 맺을 굳건한 동맹을 꿈꾸면서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세익스피어의 명량 희극 <사랑의 헛수고>의 줄거리입니다. 특이한 것은 사랑의 결실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연극이 끝납니다. 이 작품은 왕과 대신들의 굳은 결심이 프랑스 공주와 시녀들을 만나면서 허물어집니다. 사람의 결심과 다짐이 허망하고 무기력한 것을 웅변합니다. 우리 다짐과 결심의 허망함을 알 때 신앙인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 <사랑의 헛수고>는 나바라의 왕과 대신들이 국가를 위한 공부와 수행을 제쳐두고 몰두했던 사랑놀이가 헛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유쾌한 연극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 인간들의 수고가 헛됨을 암시합니다. 이 흥미진진한 작품은 인생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인생의 헛됨을 아는 것이 삶을 헛되게 살지 않는 비결일 것입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dvertisement for 2023 US Christian University Fair, featuring various institutions like Talbot Theological Seminar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Grace Mission University, and others, with details on programs and contact information.

KIDOK SHOP과 함께 합니다. www.kidokshop.com

1차 완판 감사!!

“ 뜨거운 관심으로 1차 물량 완판 ”

“ 2차 물량 판매 개시 ”

100세 시대!!

“ 이제 굽은등을 펴세요!! ”



100% 국내생산



완판감사! 추가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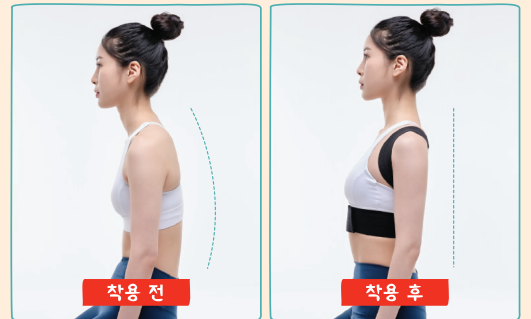


3월 31일 까지

탈부착 이동이 가능한 폭신한 어깨패드 (10불상당)



어깨패드는 거드랑이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추가 구성품으로 피부가 예민해 밴드가 조이는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함께 구입하여 같이 착용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슬림 바른자세 고정밴드 허리 등 목 고정기

리비스타 멀티 발목 보호대 하나로 다양하게
발목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발목 관절과 인대부위를 압박하여 발목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 보호해 줍니다.

빈틈없이 꼭 잡아!

리비스타 손목 보호대 걸고 감으면 끝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루종일 내 손목을 지키는 손목지킴이 1mm 얇고 가벼움, 손목에 착~ 밀착!!

1 건설협회 추천 최우수 제품 선정

BEST SELLER

리비스타 압박밴드 시리즈



건설현장/요식업/ 컴퓨터 사용시/골프/테니스등



대한민국 1등 비타민

기초건강 · 항산화 · 에너지 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모두 한 알에 담았습니다.

비타민C사실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고려은단 비타민C는 자연에서 수확한 옥수수로 만든 영국산 원료를 사용합니다.



고려은단 미국 공식 딜러 정품라벨을 확인하세요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비타민 먹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멀티비타민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것을 추천합니다



교회, 단체 행사선물 상담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상담!

기독교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스캔하고 상담하기!

www.kidokshop.com



213-235-6663

도소매 타주 판매점 모집 문의
올코샵 3055W. 7th Street
Los Angeles CA90005

강준민 칼럼

신비로운 부활의 기쁨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모국에서 부활절 인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니다. 저는 이민목회 41년 만에 처음 공식적인 안식일을 모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모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니다. 목련꽃의 자태도 아름답습니니다. 모국 땅을 밟으면 왠지 설렙니다. 제 안에는 모국을 그리워하는 유전자 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자궁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자궁에서 성장했습니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끔 어머니의 자궁에서 머물렀던 모습을 하며 잘 때가 많습니니다. 모국은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의 자궁 같은 곳입니다. 연어의 모천(母川)과 같은 곳입니다.

연어가 알을 낳고 죽기 위해 모천을 찾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귀소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을 그리워합니니다. 연어는 먼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 모

천을 찾습니니다. 연어는 모천에서 알을 낳은 후에 자신의 몸을 내어 줍니다. 알에서 깨어난 연어 새끼는 자기를 낳아준 어미 연어의 살을 먹고 자랍니니다. 어미 연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연어 새끼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니다. 이것이 죽음의 신비이며 부활의 신비입니니다. 죽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맞볼 수 있습니니다.

추운 겨울에 나무는 벌거벗은 채 모든 에너지를 오직 뿌리를 돌보는 데 사용합니니다. 추운 겨울 동안에 나무는 안식하며 봄이 되면 공급할 생수를 뿌리에 저장합니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뿌리에 저장된 생수와 영양분은 나무 전체로 전달되면서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드러냅니니다. 겨울나무는 나뭇잎이 되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았습니니다. 고요히 뿌리를 돌보고 있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푸른 싹과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살아납니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 하셨습니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심히 근심했습니니다. 두려워했습니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니다.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을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막 16:11).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가능한 것보다 가능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니다. 믿음과 확신보다는 의심과 회의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니다. 제자들의 삶의 초점이 바뀌어 갑니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니다. 그때 우리 삶은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 신비로운 기쁨입니니다. 부활의 현장을 방문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들었을 때 여인들의 감정이 신비롭습니니다. 그것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함께 경험한 감정입니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려고 달음질할새”(마 28:8).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경험한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첫째, 회복의 기쁨입니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상실하기 전까지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니다. 또한 소중한 분을 상실하기 전까지 그분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니다. 상실을 통해 우리

는 우리가 상실한 것과 상실한 대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니다. 상실은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고, 소중히 여겼던 건강이나 재물을 상실했을 때 그 고통은 큽니니다. 그런 까닭에 상실한 것을 회복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상실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한 기쁨은 정말 큰 기쁨이였습니니다.

둘째, 승리의 기쁨입니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니다. 제자들은 실패감과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니다. 비전과 소명과 소망을 상실했습니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니다.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니다. 그들이 상실했던 비전과 소명과 소망은 회복되었습니니다.

셋째, 역전의 기쁨입니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패배자의 모습이였습니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드라마는 역전의 드라마입니니다. 역전의 기쁨은 큰 기쁨입니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회복의 기쁨, 승리의 기쁨, 그리고 역전의 기쁨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니다.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합니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길 빌니니다.

진유철 칼럼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제45차 유럽총회 고난주간 연합금식성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니다. 유럽각지에서 모여든 580명의 성도들과 함께 하는 2박3일의 금식성회에서 무려 9번의 예배를 인도해야 했지만 그 영광과 감격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했습니니다.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니다.

짧은 인생을 산 아벨은 예배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았다니 죽어서도 계속 말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니다. (히11:4) 우리가 사는 미국이 짧은 2백여 년의 역사로 가장 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건 아름다운 사람들의 유산 때문입니니다. 1776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대륙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은 오직 하나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고 교회당을 세웠고 하나님 말씀 위에 법을 만들었습니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작은 자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자들입니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을 붙든 그 사람들로 인해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니다. 언제나 예배드리는 나라는 소망이 있고 예배드리

는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살리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는 예배를 공격합니니다. 맘먹고 예배 가려고 하면 평소에 안 오던 손님이 찾아오고, 애들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안하던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예배를 못나가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니다. 또 마음에 시험이라도 들면 제일 먼저 예배가 싫은 마음이 들어와 점점 예배에 빠지게 됩니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시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니다. 종종 신앙의 청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한 후 어느 날 찾아와 “목사님!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전 같은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니다. 왜 그렇습니니까?”라고 묻습니니다. 그 원인은 거의 대부분 예배에 있습니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뜨겁게 드리던 예

배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에 마음 빼앗기며 예배는 형식적인 일로 바뀌어버렸습니니다.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마음에 참된 만족과 감격, 꿈이 없어지고 세상에 안주하며 헛된 욕망을 좇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마음을 터치하면 예배가 살아납니니다. 예배가 자주 드리고 싶어져서 예배시간이 기다려져집니니다. 못부르는 찬송이지만 부르고 싶고, 못하는 기도라도 하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 다 자기한테 하는 말로 들려져집니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죽으셨음이 믿어지는 눈물이 회복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승리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 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해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니다.

www.Kidokshop.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슬랑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구봉주 칼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우리 감사한인교회는 두 주 전부터, 오늘까지 3주째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선교 보고 및 간증을 들으며, 가슴에 선교의 불을 붙이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월 5일은 선교대회 기간입니다. 적어도, 이 기간 동안만큼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로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 주에는 북한 선교 주간으로 김요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북한에서도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셨습니다. 중국 유학 중에 예수님을 믿고, 대한민국에 살게 되

셨을 때에도 북한 전문가로서, 공직에 일하시거나, 신학교 졸업 후, 선교학 교수로 미래가 보장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교사님은 목숨이 위협할 수 있는 북한선교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는 튀르키예 선교 주간으로 노선교사님 내외분, 탁선교사님 내외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선교사님 내외분은 보장된 미국생활과 이민 목회사역을 내려놓고, 아프카니스탄 고아원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할 나이에도 은퇴를 뒤로 하고, 튀르키예 땅에서 교회와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몸바쳐 헌신하고 계십니다. 탁선교사님 내외분은 평안한 한국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어린 세 딸을 데리고, 위험천만한 아프카니스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슬림 난민들이 살고 있는 튀르키예 땅에서 한 달에 절반을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개척된 가정 교회들을 돌보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태국 선교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허수성 선교사님 내외분은 한국과 미국의 지역교회 목회사역을 내려놓고, 현재 태국에서 현지교회를 세우,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선교 기간 중에 따님을 먼저 일찍 천국에 보내는 슬픔 가운데서도 따님을 태국 땅에 묻고 지금도 헌신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에 매여, 주님의 꿈과 비전을 자신들의 꿈과 비전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할리우드의 여배우가 두 명 있었습니다. 마릴린 먼로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콜린 타운센드였습니다. 두 여배우는 당대에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릴린 먼로는 여러 남자와 스캔들이 있었고, 생의 마지막에는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함과 삶의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반면에 콜린 타운센드는 인기 절정을 누리던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고 화려한 할리우드 은막을 떠나겠다고 선언 하였습니다. 당시, 콜린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도대체 당신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선택한 행운아가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콜린

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있는 빛을 갖기 위해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 콜린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와 결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성을 따라, 콜린 에반스가 되어,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아 우간다에서 성실하게 선교활동을 수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에 잠시 귀국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그녀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콜린,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후회라니요?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역은 나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자리 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살게 되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선행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박동식 칼럼

불현듯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박동식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2019년에 출간한 『마가복음 읽기: 일상과 신앙』에서, 필자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부분(막 14:66-72)의 소제목을 “베드로의 닭처럼 우리의 닭도 언제 울지 모른다”로 했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의 교만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닭이 울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닭도 언제 울지 모르니 겸손하자 했었다. 이번에는 초점을 좀 틀어서 베드로의 닭이 인생의 중요한 경고음을 보고자 한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 번의 과정은 진보한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음을 ‘부인’(70절) 하지만,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며(72절),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한다(74절). 그러니까 그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은, 부인->맹세와 부

인->저주와 맹세와 부인으로 하나씩 추가되며 발전한다. 죄도 진보한다.

그때 닭이 울고 베드로는 통곡한다(마 26:74). 자신이 예수를 부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더욱 더 강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닭이었다. 닭을 사 용해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이니, ‘닭대가리’라는 닭에 대한 비하 언어도 고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닭 울음 소리에 자신이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베드로는 통곡한다.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베드로에게 그것은 닭이었다. 우리도 잘못된 선택지를 선택하고 그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도 닭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길이 아니구나, 내가 선택한 것이 틀린 것이구나, 내가 하는 말이 바른말이 아니구나, 내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구나, 내가 바라보는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려는 비전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자신의 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없으니 수시로 죄를 짓지 않는가. 가롯 유다에게도 그 닭이 없었다. 다시 말해 어떤 경고음이 없었다. 자신이 잘

못했다는 것은 스스로 알고 뉘우쳤지만(마 27:3), 그다음 선택지인 회개 없는 죽음이 잘 못되었음을 알리는 닭울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차이점은 경고음이 밖에 있느냐, 자신에게 있느냐의 차이였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지 못했다. 닭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스스로 깨우쳤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보다 낫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자신에게 강하게 버렸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차이는 특별 은총과 자연 은총의 차이 같다. 베드로는 밖에서 들리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반면, 가롯 유다에게는 그런 특별 은총 없이 그저 뉘우침이라는 자연 은총만 있었다. 그러나 닭은 단순히 닭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선물일 수 있다. 가롯 유다에게는 없지만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특별 은총이었다.

우리 인생에도 베드로의 닭이라는 특별 은총의 복음이 들리기를 소망한다. 그래야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죄를 짓고, 죄를 짓기에 죄인이다. 하지만 회개의 길이 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주의 얼굴을 구하면 된다. 베드로는 특별 은총으로 주의 얼굴을 구했지만, 가롯 유다는 주의 얼굴을 찾지

않았다. 특별 은총이 없어서 그렇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시니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시 27:8)고 고백한다.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자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얻고자 함이다. 왜냐하면 외적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얼굴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다윗이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 것을’(9절) 간구한다.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떠난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서는 버린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에(9절),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한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다윗인들 왜 물렸을까?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은 그만큼 다윗이 처한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이며 간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기에 이 한 문장은 모순 어법이지만, 그럼에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얼굴, 그것은 모순이 품고 있는 가장 행복한 희망의 근원이다.

살아가다가 불현듯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가롯 유다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베드로의 눈물이어야 할 것이다.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통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국제비즈니스 USA 이사장
(원)남가주 교외법원의 고문 변호사
(원)제마발행기 협회 고문 변호사
(원)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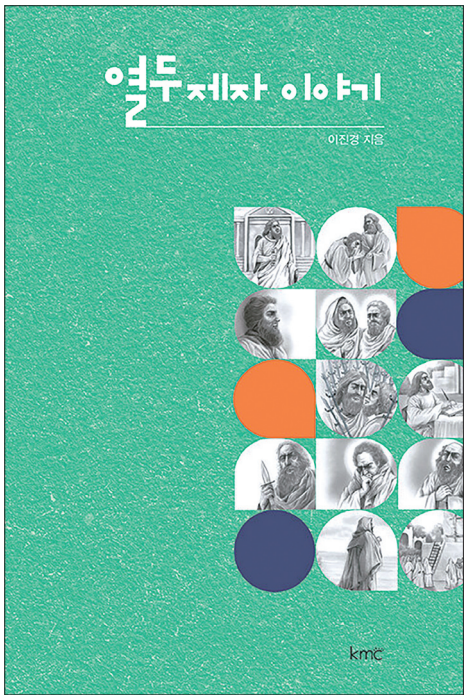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크리스찬북뉴스서평] 보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 열두 제자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행적까지



열두 제자 이야기

이진경
kmc | 240쪽

열두 제자를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상상력을 더해
제자들의 삶을
탄탄하게 재구성하다

처음부터
완전한 제자는 없다
그들이 변화되어
쓰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열두 제자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본서는 사도들의 삶에 대해 저자가 그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소개하는 각 장 전반부는 서신과 회고록 형식을 빌려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고, 후반부는 제자들의 삶에서 특징적인 한두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자가 가진 학문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그들의 삶을 추적한다.

◆ 열두 사도가 차지하는 비중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구약의 열두 지파를 뒤잇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제자 중 갈릴 유다가 죽었을 때 '열둘'이라는 숫자는 모자람이 없어야 했기에, 사도행전에서 맛디아를 뽑아 그 열두 제자에 포함시켰다.

열두 사도 가운데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름 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본서에서 이렇듯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도들조차 같은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사랑한 세 제자에 속하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책의 말미에 같이 묶어 소개하는 반면, 바돌로매와 다대오 같이 그들의 이름 외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도 저자의 상상력을 더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비중으로 소개한다. 이것은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한결 같이 동일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 열두 제자들에 대한 개요

본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본서가 소개하는 열두 제자들의 삶에 대한 저자의 요지를 간략하게나마 언급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저자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배반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배신의 충격이 컸던 만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충성할 정도로 그의 헌신의 깊이와 넓이가 컸음을 강조한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뵈고서야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에, 인간의 이성과 신비 사이에서 고민하다 거듭난, 이성과 신앙 사이에서 조화를 이룬 제자로 설명한다.

빌립은 그 이름에 담긴 정체성으로 삶을 조명하는데, 빌립이 헬라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자는 그를 예수님께 헬라인들을 연결시켜준 인물로 소개한다.

가롯 유다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이 처음 생각한 것과 다르게 행동하셨기에 배신한 인물로서 그의 삶을 추적한다.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기에, 저자는 예수님이 주변의 혐오를 개의치 않고 누구든 제자로 쓰셨다는 사실을 토대로, 주님을 따르는 데는 직업의 귀천이 없으며 주님은 오로지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바돌로매가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운 후 이를 추적하고, 그가 아르메니아에서 산 채로 가죽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음을 전한다.

베드로의 친동생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안드레의 삶을 추적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그는 베드로와 달리 내성적이었으나, 조용한 사람이 때로 큰 사고를 치는 것처럼 상상을 뛰어넘는 큰 결단력으로 순교했음을 강조한다.

다대오는 존재감이 크지 않았고 그 이름이 세 가지로 표기될 정도로 행적이 모호하지만, 이런 모호성은 사도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후대에 전해지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모티브가 된다.

알패오의 야고보는 주의 형제로 표현된 야고보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친척인 야고보일 수도 있고,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일 수

도 있을 것이라 생각될 정도로 이스라엘 시대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 저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추적한다.

저자는 열심당원 시몬을 유대 해방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로 소개하며, 그런 그가 유대를 위한 투쟁과 예수님 사이에서 고민을 끝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무슨 일을 해내었는지를 추적한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저자는 마지막으로 친형제인 요한과 야고보를 한꺼번에 묶어 소개한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 최초로 순교한 이로, 요한은 열두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자 연사한 것으로 설명한다.

◆ 객관적 증거 위에 상상력이 더해진 작품
저자는 독일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로서,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제자들의 세계를 객관적 증거를 붙들고 추적하면서도 그 상상력이 범상치 않다.

필자는 본서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저자가 도출하고자 하는 바가 정말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가졌지만, 저자가 상당히 논리적 접근을 하고 있어 그 내용이 상상의 세계일 수 있는 부분까지 긍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 열둘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울러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는 저자가 사도의 영역을 넓혀, 여성 제자들의 세계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여성 제자로 소개한다. 당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여성들이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복음 운동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강조한다.

나아가 저자는 바울이 예수님 곁에서 직접 수종들지 않았더라도 사도로 지칭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오늘날 복음을 들고 만방으로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로 지칭받을 수 있다고 설파한다.

◆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현 시대의 제자들
우리는 열두 제자 외에도 예수님 주변에서 그분을 섬겼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처럼, 우리 생명을 바치기까지 충성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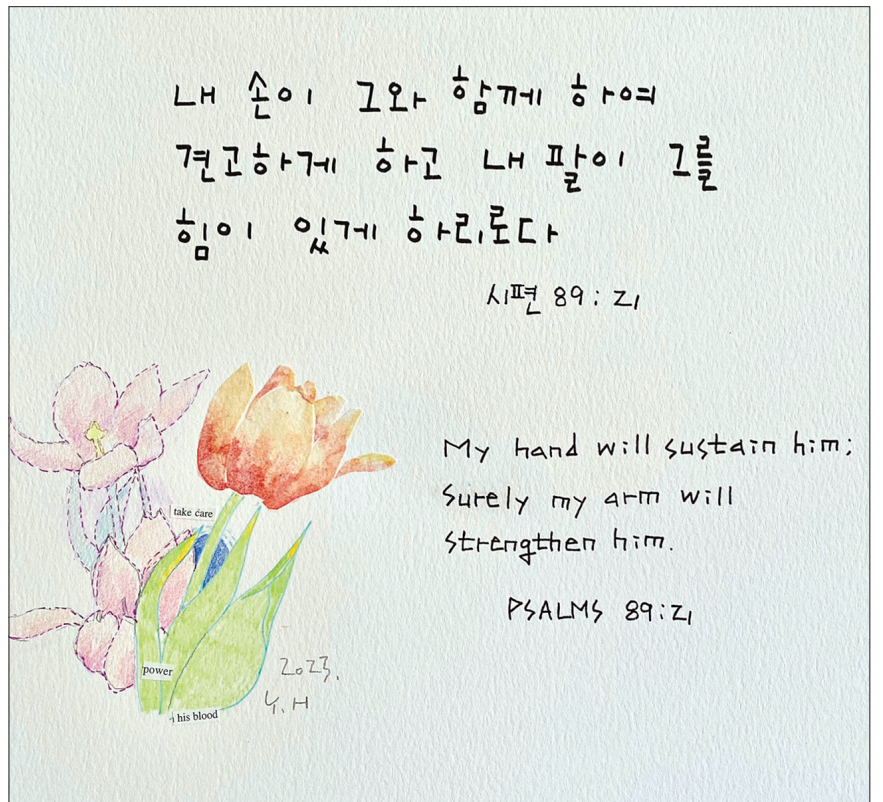
본서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들이 이처럼 죽기까지 충성한 것은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데서 오는 확신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자로서, 어쩌면 열두 제자들보다도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시대에 살았던 사도들처럼 '보냄 받은 사명'을 갖고 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를 뜻하며, 이 말은 오늘날 복음의 사명을 부여받고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될 것이다.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본받아 죽기까지 충성한다면, 우리도 보냄받은 '사도'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될 것이다.

채천석
크리스찬북뉴스 대표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2023 - 2024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기쁜우리교회
담임목사 김 경 진
Senior Pastor Rev. Gyeong Jin Kim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6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

-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Southern California 내에 있는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학생
- ▶ Categories: i) General, (ii) PK & MK, (iii) Seminary

선발 일정

- ▶ 신청서 접수기간: 2023년 4월 17일 ~ 5월 31일
- ▶ 선발 결과 발표: 2023년 8월 1일 예정
- ▶ 장학금 수여식: 2023년 8월 20일 예정 (추후 발표)

선발 인원

00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3@joyfulccc.org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나는 신이다> (3)

JMS 같은 사이비 vs 복음 비트는 이단, 어느 편이 더 위험한가?

<나는 신이다> 등의 폭로성 보도 사이비 아닌 이단에 무관심한 태도 이단, 올바른 복음 지식 무너뜨려 한국교회 적절한 대비 능력 절실히

◆사이비 종교의 폐해: 사이비, 이단인 동시에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

‘이단(異端)’이란 ‘끝이 다르다’는 뜻으로, 기존에 정통 혹은 원조로 여겨지는 신앙이나 사상체계를 원래와 다른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행태 혹은 집단을 말한다. 반면 ‘사이비(似而非)’란 ‘유사하지만 아닌 것’을 뜻하는 말로, 이단들 가운데 특별히 윤리적으로 분명한 결함을 가진 종교나 사상체계를 말한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등장한 이단 교주들은 모두 성경과 정통 기독교 교의를 기초삼아 새로운 사상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어설픈 체계로 구성된 사상 체계를 가지고 교주 자신과 그 추종자들의 이익과 부도덕한 욕망을 위해 활용하였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나온 집단들은 모두 이단이면서 동시에 명백한 사이비 종교로 규정할 수 있다.

<나는 신이다>는 이 집단들이 조직적으로 행한 비리나 범죄행각을 밝혀 사이비 종교의 본모습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이로써 기독교인들만 아니라 평소 기독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도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신이다>가 보여주는 사이비 종교의 해악은 기독교 신앙의 교의적·신학적 왜곡보다는 해당 집단 교주와 그 추종자들의 비틀린 욕망과 악독한 기만, 극단적 이기심을 바탕으로 범죄행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언론보도 및 심층취재 형식을 띠고 있고, 당연히 언론윤리에 따라 기독교 신앙의 입장보다는 사회 전반 여론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사이비 종교를 살피고 비

판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신이다>를 비롯해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대한 모든 폭로성 보도 프로그램들은 사이비 종교를 지목하는 데는 강점을 보이지만, 사이비의 영역에 들어 서지 않은 이단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특히 종교다원주의적 태도가 종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이념에 힘입어 하나의 확고한 사회윤리로 자리잡은 현 세태 속에서는 ‘윤리적 결함을 보이지 않는’ 이단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시대착오적인 일로 여겨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통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는 이들,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이들 입장에서 사이비는 아니지만 이단인 종교와, 이단이면서 사이비인 종교 양쪽 모두 큰 위험성을 갖는다. JMS나 만민중앙교회 같은 사이비 단체들의 경우 교주가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에게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단체들에 대해 비교적 확고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든 사회 통념상으로도 별 다른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이단 종파들, 특히 오랜 시간 생존해서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교세를 확보한 이단들에 대해서는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조차 경계심을 쉽게 누그러뜨리는 경우가 많다.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이단성을 의심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종파들, 예를 들어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종파들에 대한 일반 신자들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유희적으로 변해가는 중이다.

◆이단 종파의 폐해: 이단, 윤리적 결함은 없으나 복음을 비트는 집단



사이비 종교 JMS의 본산 월명동 전경. ©wmd.god21.net 캡처

이런 태도의 변화 원인을 살펴보면 종교분쟁을 미개하기 그지없는 범죄로 규정하는 근대 계몽주의 역사관이 발견된다.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기독교회 내부에서 수행된 숭한 교의적·신학적 논란, 종교회의, 그리고 종교재판 대다수가 다른 교단 혹은 종파에 속한 이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의 기제라는 사고가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현대인의 머리 속에 깊게 각인되어 있다.

종교회의나 종교재판이 여러 차례 조직적 종교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회 내부에서 수행된 ‘거의 모든’ 교의적·신학적 논쟁이 종교범죄의 구실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의 논쟁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과 교회 내부 윤리 확립의 계기로 작용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갱신된 신약의 복음은 모든 종류의 폭력적 종교분쟁을 금한다. 이단 종파에 대한 기독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태도는 다음의 말씀 한 구절에 모두 집약되어 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딤후 3:10)”.

오늘날 교육과 미디어는 이런 태도가 배타주의적이라며 비판한다. 과거 이단들을 정죄하고 가혹한 형벌을 가하던 교회의 잔혹한 전통이 다소 순화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편파적인 판단이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은 신앙을 이유 삼지 않더라도 각자의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 각자의 배타성을 지닌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각별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꺼리고 멀리하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배타성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관계의 자유라고 말한다. 이 자유는 정통 신앙을 고수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속한 이들을 멀리하는 데에도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의 편파적 비판을 의식한 듯, 근래 교회 강단에서는 이단 종파들의 교의적 문제점과 그 영적 폐해에 대해 면밀하게

가르치기를 저어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모여 교회 내부에서 이단들의 가르침을 판별하고 바른 복음을 고수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 사례로, 2012년 빌리 그레함 목사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이자 독실한 몰몬교도인 미트 롬니를 지지하면서 몰몬교를 이단이 아니라고 공표한 일을 지목할 수 있다.

몰몬교는 1830년대 처음 창시되었을 때 주로 일부다처제 때문에 이단으로 몰렸지만, 현재는 일부다처제를 완전히 포기하였고 미국 사회와 지역 공동체 주민들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봉사하는 종파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정통 기독교회 입장에서는 삼위삼체론을 주장하고 몰몬경과 몰몬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이단으로 분류된다.

정통 기독교 신앙인들 입장에서 이단 종파들이 위험한 이유는 사이비 단체로 발전될 가능성에만 있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윤리적이고 화목한 공동체의 외양을 이용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리저리 비트는 행태가 더 위험하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삶을 근거짓는 복음의 지적 엄정함에 영혼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다. 윤리적 실천이 없는 복음의 지식도, 복음의 지식이 없는 윤리적 실천도 모두 구원없는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

구원의 길을 이루는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올바른 복음의 지식을 무너뜨리는 이단 종파들의 가르침에 대해 작금의 한국교회가 과연 적절하게 대비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신이다>의 사회적 파급력을 목도하면서, 사이비 종교 이외에도 이단으로 분류된 단체들에 대한 교역자들과 교인들의 판단력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지 한국교회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을 절감한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2012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미트 롬니와 대화 중인 빌리 그레함 목사. 세계 복음화 사역에서 그레함 목사가 이룩한 업적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몰몬교가 이단이 아니라고 공표한 일은 그의 경력에 큰 오점을 남겼다. ©BGEA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물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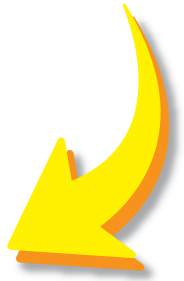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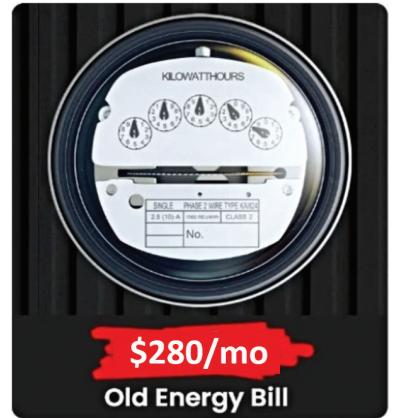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전기세가 11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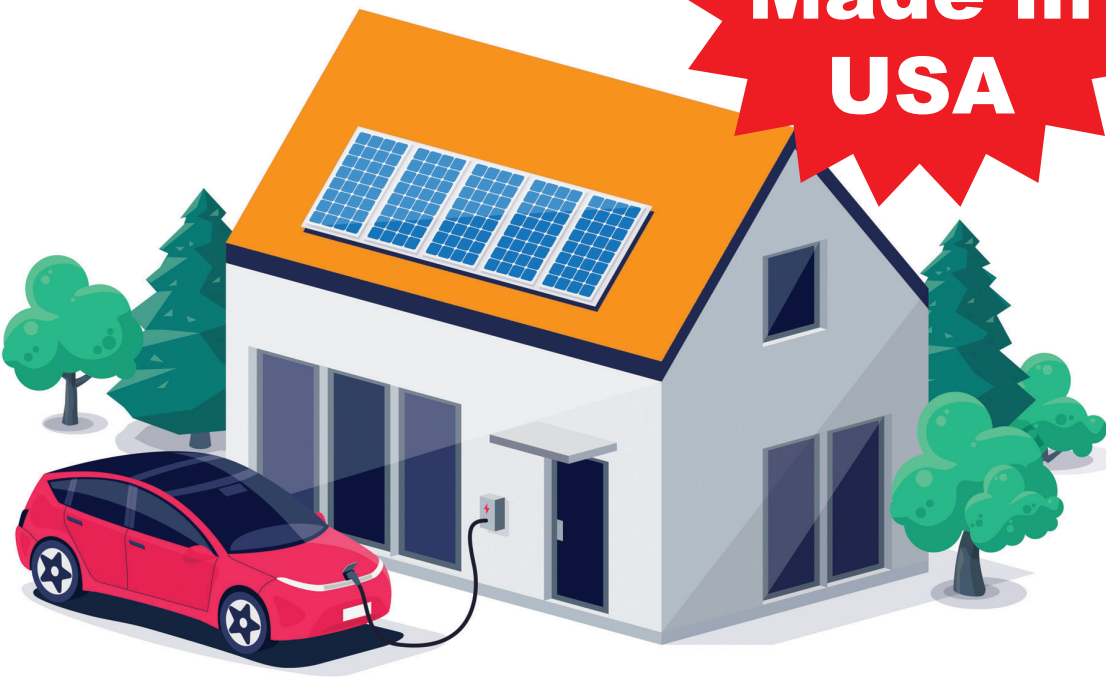
100%
Made in
US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년 뒤 부터 Payment
- ✔ 전기료 70~80% 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70~80% 절감 ***

다른 솔라 업체에 문의 후 BTS 솔라에 연락해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십시오!!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70%~80% 절감효과
-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st Payment은 설치 후 바로 1년 후 부터
-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1~2달 안에 설치 가능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소개 해 주시면 500불을 드립니다

213-500-8000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요.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